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러한 빅맨은 모든것이
대형하는 빅맨입니다!
●고객의 수혜를 극대화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문의처: 080-020-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태환/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화/ 인쇄: 김규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광고국: 737-0692/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한국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복리를 추원해온 호국의 교법이다. 기도의 공력으로 국가를 위호하며, 국인이 일어났을 때는 지성으로 국가번영을 기원하고 호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걸기했다. 또다시 영유권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고 있다.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이 살아 호국사상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종조(宗祖)를 공경하고 여 남로 증대에 같 것이며, 이성들이 예의바르고 음가집 곳의 강국은 모두 굴복하고 또한 단정하며 종교인 온갖 신하들은 다 업속들을 우려 받들어서 해져서 안락이 한아름 사회윤리가 확립된 국 이 될 것이다. (화엄경)

나라

현명한 왕이 있어서 님이 올 때 일어나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종(宗)을 근심함에는 신(神)도 또한 한 사람의 신(神)이다. (침허집)

이 불(佛)이 세계를 사바라고 이름하는데, 어떠한 인연때문에 이 불(佛)이 사바라고 하는 나 하면, 이의 재(財)는 은 삼독(貪·瞋·癡) 및 재(財) 번뇌를 참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장아함경)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백명의 비구들을 청하여 <인왕경>을 외우는 의식을 차려야 한다. 우선 백개의 높은 연단을 만들고 그 앞에 백개의 등불을 켜고 백가지 향불을 피우며 백가지 꽃으로 부처와 불경과 승단을 장식하며 좋은 음식과 의복으로 비구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하루 두번이 경을 읽게 하면 온갖 잡귀신들도 이 설교를 들어 그 독살을 경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에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되어 왕의 덕은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농아불자 47명 '갯바위' 순례 15면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 1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우리땅 독도 수호 기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총무부장 부부장 원우스님들 종단 간부스님과 육해공군 법사들은 지난날 28일 독도를 방문, 해안경비대원들과 국도수호를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기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영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마련했다.

“신도증으로 공원 무료입장” 요구

조계종,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수입분배·문화재보수비 현실화도

조계종 총무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에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찰을 출입하는 신도가 신도증을 제시할때 입장료를 면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날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교계 요구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공원사업 수입분배 △문화재보수비 현실화 △신도증소유자 입장료면제 △공원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료료합동징수 명문화등으로 수년째 제기된 교계의 현안 사항이다.

총무원은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의 입증여부를 놓고 대표소 직원과 신도간에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찰에 있는 스님이 공원입구까지 내려와 신도임을 증명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3월15일부터 조계종 포교원이 발급하는 신도증 소유자에 한해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대표소직원에게 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를 입장료 징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 여부에 따라 조계종이 발급하는 신도증을 소유한 불자는 자유롭게 사찰을 참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또한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사찰의 토지와 사찰이 보존한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하고 "사찰의 기여도를 인정해 공원사업수입을 분배하고 공원에서 사찰 토지구상비용, 사찰토지에 위치한 공원시설의 토지이음에 따른 대가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국립공원마다 무원칙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재보수비를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료 수입의 30%를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문화재보존 관리자에게 적절하게 분산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총무원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요구사항의 시행을 위해 국립공원내 사찰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는 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사회정보 및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헌법소원청구 등의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업 기자>

문체부, 내년 '문화유산의 해' 지정

국보·보물 재평가등 민족 자긍심 고취

내년 1997년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다.

해마다 문화예술의 해를 지정해 온 문체부는 지난날 28일 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확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랑 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해 석굴암·팔민대장경·종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관심이 매우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재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를 올해안에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불련 위원장 초청

월주스님, 초파일 서울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6일 남북종교인 북경회의에 불교대표로 참석한 성타스님(조계종포교위원장)을 통해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의 서울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초청장에서 "4월 6일 남북상호 교향법회 및 부처님오신날 불국법회 참석을 위하여 서울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그러나 서울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축원법회'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월주스님은 또 북한 외금강산의 '신계사 복원공사'를 남한의 광복절을 중심으로 전종단의 참여아래 전개하고자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고 전했다.

규약기초안 마련

중앙신도회 준비위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현장·규약기초특별위원회는 지난날 28일 준비위사무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규약기초안을 마련했다.

규약기초안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신도조직의 명칭을 '조계종 전국신도연합회'로 했으며 회장선출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을 택했다. 대의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규약기초안은 총무원기획실과의 협의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종교인들의 서울·평양 정례회' 합의

남북종교협 북경서 첫만남...6월 일본서 예비회의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장재철)는 지난날 28~29일 북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종교인회의를 열고 남북종교인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두 회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현상에서 종교인들의 상호대화 필요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6월 일본 도쿄에서 정례모임 실현을 위한 예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북경회의에 참석에서는 한국종교협의회 이재석회장을 단장으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위원장) 해조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등 각 종교대표 13명, 북쪽에서는 조선천주교인협의회 장재철회장(단장)을 비롯 황병태 조선불도연맹 부위원장, 한명수 조선기독교연맹 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텔번호 732-1520-4

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폐기, 전동기, 계전류, 용접기, 설비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선박기관,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비, 석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가치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처리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지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운송설비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